

「서울 1000년 타임캡슐광장」 설계안

김신원* · 강현경**

*경희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프리랜스 조경 디자이너

A Design Proposal for the Time Capsule Plaza of Seoul's 1000 Years

Kim, Shin-Won* · Kang, Hyun-Kyung**

*Graduat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Freelance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er

ABSTRACT

In November of 1994,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elebrates its sixth centennial anniversary of becoming the capital city of Korea. In celebration of this anniversary, the Government decided to construct a plaza and sought design proposals in March of 1994. The authors collaborated on a design for the Time Capsule Plaza Competition and won fourth place among twenty-six e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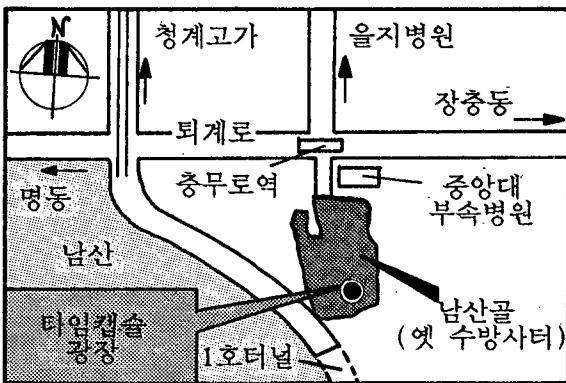
In the authors' design, the traditional oriental concept of time resonates within the site through the shape of a clock, a unique planting style, and an "Ancestral Tomb" which has a time capsule inside. The plaza is meant to be a symbol of the passage of time, the cycles of nature, and the repetitive actions of man. As for the spatial composition of the plaza, in accordance with the traditional Korean way of spatial arrangement, the plaza is divided into three parts: entry, primary, and secondary spaces. In reality, the plaza is created with the primary goal of providing modern outdoor space for people to rest and gather through the creation of pleasant environments and the introduction of traditional Korean garden elements.

I. 「서울 1000년 타임캡슐광장」 사업의 배경

서울시는 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중심사업의 하나로 타임캡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입캡슐 매설지 주변에 「서울 1000년 타임캡슐광장」을 조성, 명소화 하기로 하였다. 타임캡슐사업은 시민 공모를 기초자료로 하여 오늘날의 생활상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문물 600점을 선정, 400년 이상 부식되지 않을 특수재질로 제

작된 타임캡슐에 내장하여 서울정도 600들이 되는 날인 1994년 11월 29일 매설하였다가 400년 후인 정도 1000년이 되는 2394년 11월 29일에 개봉토록 하여 서울정도 1000년의 후손들에게 오늘날의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전달코자 하는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하나이다. 서울시는 타임캡슐의 매설장소로 남산을 비롯한 용산가족공원, 올림픽공원, 탑골공원, 운현궁, 어린이대공원 등을 놓고 선정작업을 벌여온 끝에 정도 600년사업의 하나로 복원공사가 진행중인 옛 수방사터인 남산골(중구 필동 2가 84-1,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부지내)로 정했었다(그림 1). 시는 이와 함께 타임캡슐 매설지점을 중심으로 300내지 500평 규모의 광장을 조성하여 타임캡슐 매설장소를 역사적, 관광적 명소로 만들어 서울정도 600년의 상징과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코자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광장에 세울 상징물 및 광장공간 조성에 관한 설계안을 현상공모했었다. 시는 당선된 설계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광장설계를 한 뒤 1994년 4월 중순부터 광장조성사업에 들어가 매설일인 11월 29일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도 600년 기념일인 11월 29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임캡슐을 묻은 뒤 정도 1000년이 되는 2394년 11월 29일에 후손들에게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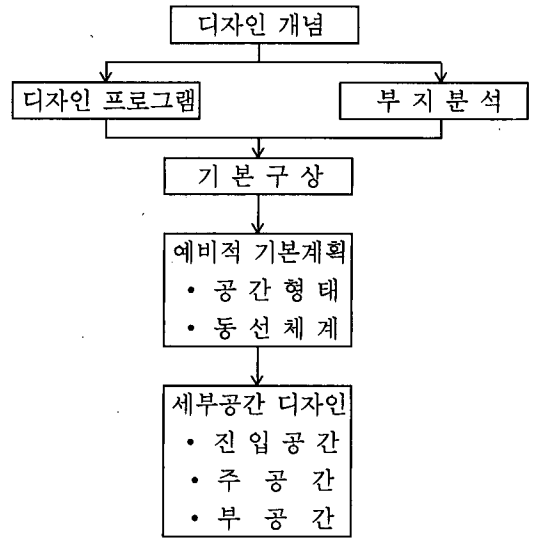


(그림 1) 「서울 1000년 타임캡슐광장」 위치도

II. 광장디자인 과정

설계자는 (그림 2)의 디자인 과정을 거쳐 타임

캡슐광장의 공간디자인을 수행하였다.



(그림 2) 디자인 과정

III. 광장디자인 개념

광장디자인을 위한 설계자의 기본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1994년 11월 29일 서울정도 600년이 되는 날 이곳 남산골에 오늘날의 생활상을 나타내는 문물을 타임캡슐에 내장하여 매설한다. 고분에서 발굴한 유물로부터 우리가 선조의 얼과 숨결을 느끼고 생활상을 알 수 있듯이 400년 후인 2394년 11월 29일 서울정도 1000년이 되는 날 우리의 후손들은 타임캡슐을 개봉함으로써 그들의 조상이 될 현재의 우리가 지닌 문화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재의 우리는 타임캡슐과 함께 이곳에 묻힌다. 시간의 흐름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존재로서 땅속에 남아있다가 미래의 후손들이 “조상의 묘”가 되어버린 타임캡슐로부터 우리를 찾아내어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다시 태어날 그날까지 생명의 원천인 물을 공급받으며 시간이 공간속에 상징적으로 구현된 이곳에서 안식하자.」

IV. 광장디자인 프로그램

서울시는 「서울 1000년 타임캡슐광장」이 지녀야 할 기능으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했었다.

- 서울 600년의 과거와 향후 400년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
- 서울정도 600년의 상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된 공간
- 서울 제일의 명소로서 국내외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공간
- 시민의 휴식공간, 만남의 장소, 역사학습장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
-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과의 상호보완적 연계성이 반영된 공간

이에 따라 설계자는 「서울 1000년 타임캡슐광장」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디자인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광장공간을 조성하였다.

- 서울의 역사적, 관광적 명소로서 국내외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서울정도 600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적인 조경양식을 도입한 현대적인 옥외공간을 조성한다.
- 서울시민의 휴식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과의 상호보완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에 의해 복원될 산정(山亭) 주변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
-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 부지내의 정상부로서 휴식 및 조망공간인 산정 및 주변공간과의 연계성을 제고한다.

V. 광장부지분석

타임캡슐광장이 조성될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 부지는 필동 수방사 이전지(移轉地)로서 남산의 북사면에 위치하여 북쪽을 향하여 열려있는 지역이다. 필동 주거지역이 부지의 동쪽에 위치하고 남산공원이 남쪽과 서쪽을 감싸며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쪽은 고층건물군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 부지내로의 주 진입은 퇴계로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대중교통수

단인 지하철 3, 4호선의 충무로역은 부지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강북과 강남 전역으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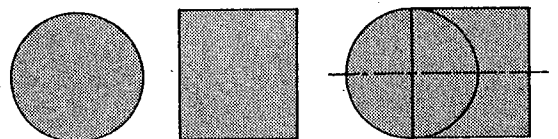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 부지는 남산공원과 연결하여 공원의 입구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부지의 3면이 주거 및 업무지역으로 이루어져 많은 이용객이 예상된다. 따라서 타임캡슐광장은 예상되는 이용자들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상징적 공간, 서울의 명소로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 부지내 동선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사업에 의해 복원될 자연스러운 전통정원적 분위기에 어울리는 공간이 되도록 하며 타임캡슐광장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계획함이 필요하다.

VI. 광장공간 구성원리 및 문제해결 방안

설계자는 500평 규모의 광장공간을 조성했는데, 설계자의 디자인 개념과 프로그램을 위한 세부적인 공간구성 원리 및 문제해결 방안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광장의 전체적 평면

설계자는 전체적인 광장공간의 기본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하학적 개념에 의한 디자인기법을 사용했는데, 먼저 광장공간의 전체적 평면은 일차적으로 원형과 사각형의 2가지 기하학적 형태를 조합하여 통합시킨 형태이다(그림 3).



(그림 3) 타임캡슐광장공간의 기본적인 평면

원형이라는 기하학적 형태는 원래 연속성, 영원함, 무한함, 온정, 인정 많음, 보호, 방어, 방위의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원형은 광장공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내주는 기하학적 형태가 된다.

두번째의 기하학적 형태인 사각형은 원래 일관성, 강직함, 정절, 정결, 단조로움의 의미와 연관성을 갖는 형태로서, 직선적 처리에 의해 조성된 노단식 화계와 계단 그리고 방지(方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지당(池塘)의 모습등 전통적인 조경양식에 나타난 소박함과 간결함 그리고 단순함을 대표하는 기하학적 형태가 된다.

본질적인 기하학적 특성상 강한 대칭성을 지닌 원형과 사각형이라는 2가지의 기하학적 도형을 통합시켜 만든 형태 역시 강한 대칭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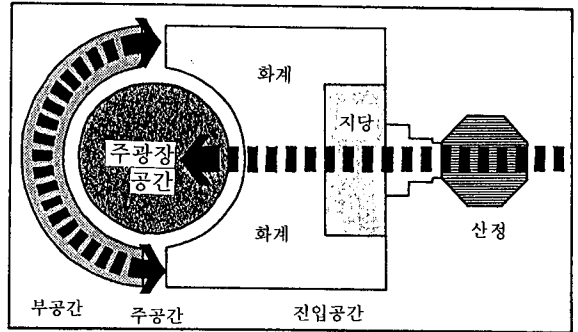
대칭평면은 원래 죽음의 의미를 지닌 공간에 범인(凡人)이 논의할 수 없는 초인적인 위력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 그 진가를 발휘해온 형태이다. 특히 옛 시대의 묘에 원형평면이 많은 것은 원형이 오랜 옛날부터 영원의 상징으로서 신의 영광이 담긴 기념성이 풍부한 형태였기 때문이다. 축에 의해 이루어진 대칭적 경관을 구성하는 기법은 한국의 전통적인 조경양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400년 후 후손들에 의해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조상의 묘”에 묻혀 일시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타임캡슐광장이 갖는 상징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하학적 평면공간은 축에 의해 분할된 대칭적 평면이랄 수 있다.

2 광장공간의 구성체계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배치양식에 입각하여 설계자는 전체적인 광장공간을 진입공간, 주공간, 부공간의 3가지 공간체계로 구성하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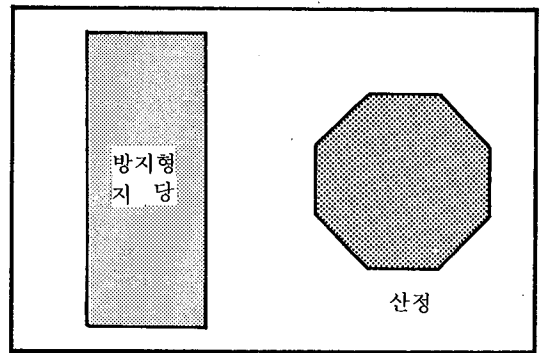
1) 진입공간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에 의해 세워질 산정 및 주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산정과 타임캡슐광장 사이에 전통적인 지당의 대표적 형태인



(그림 4) 타임캡슐광장공간의 구성체계

방지형의 지당을 배치했다. 이것은 평양의 풍월루(1371)나 함양 감계서원의 풍수루(1552)의 경우에서와 같은 전통적인 조경양식에서 볼 수 있는 정자배치, 특히 경치가 수려한 곳에 외따로 세워 주위의 자연경관을 폭넓게 조망하고자 하는 경관적 요소로서의 산정배치의 개념을 만족시키는 공간구성 기법이다(그림 5).



(그림 5) 지당과 산정과의 관계

타임캡슐광장과 산정 사이에 지당을 마련해 광장으로의 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공간이 되도록 한 또다른 이유는 주광장공간과 산정주변의 공간 사이에 경계부 역할을 하는 전이적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지당 위에는 석교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지당 양쪽의 두 공간을 연결시켜줄과 동시에 수면에 비치는 아치형의 석교가 지닌 투영미도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사진 1).

지당에서 광장까지의 공간배치에 있어서는 자

연경사지를 이용한 전통적인 수직적 공간분할 방식을 채택하여 전통조경양식인 노단처리 기법을 도입, 화계를 조성하였다(사진2).



(사진 1) 지당위의 석교에 대한 공간 이미지



(사진 2) 진입공간의 화계에 대한 공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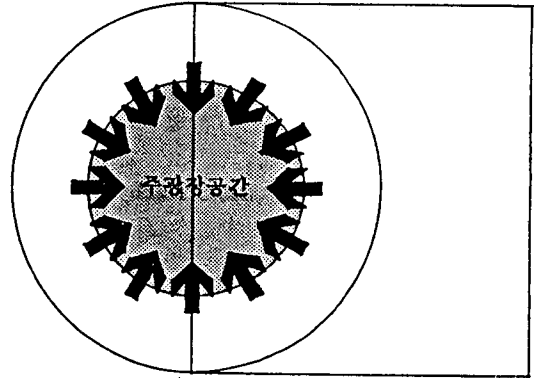
2) 주공간

① 주광장공간의 평면

미래의 서울은 세계화속의 한국을 대표하는 선도자적 도시로서 발전해나갈 것이며, 따라서 수많은 외국 관광객이 명소화된 이곳 타임캡슐광장을 방문하여 그들 나름의 공간이용 행태를 보여 주리라 예상된다. 또한, 자유롭게 개방되어가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성장해나갈 우리의 후손들은 세련된 공공의식을 가지고 보다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리라 기대한다.

이렇듯 외향적이고 사교적일 수 있는 내외국의 공간이용자들이 광장공간속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 시간의

연속성, 문화의 역사성, 그리고 자연의 순환성에 대해 사색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타임캡슐광장의 주공간은 투기장형(The Arena)의 평면으로 디자인하였다(그림 6).



(그림 6) 투기장형의 주광장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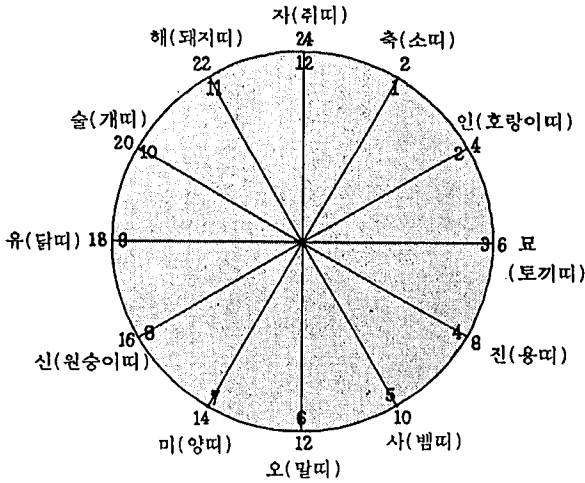
이 형태는 원래 사교생활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내향적인 공간의 형태로서 공공생활을 즐기기 위한 평면인데, 원시인들의 부락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다. 친밀한 공공관계를 위한 훌륭한 평면에 의해 디자인된 주광장공간속에서 개인은 타임캡슐광장에 구현된 상징화된 의미를 깨닫고 즐거움을 느낄 것이며 공간속에 모인 사람들 전체는 같은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고 기쁨을 맛볼 것이다.

타임캡슐광장이 갖는 시간의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전통적인 시간개념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였고, 인간이 고안한 기계장치 가운데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를 원형의 주광장공간에 3차원적으로 표현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시라고 하였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시계는 원형의 판에 시침이 1시부터 12시까지 가리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2가지의 개념을 혼합하여 주광장공간의 세부적 형태를 위한 기본골격을 구성하였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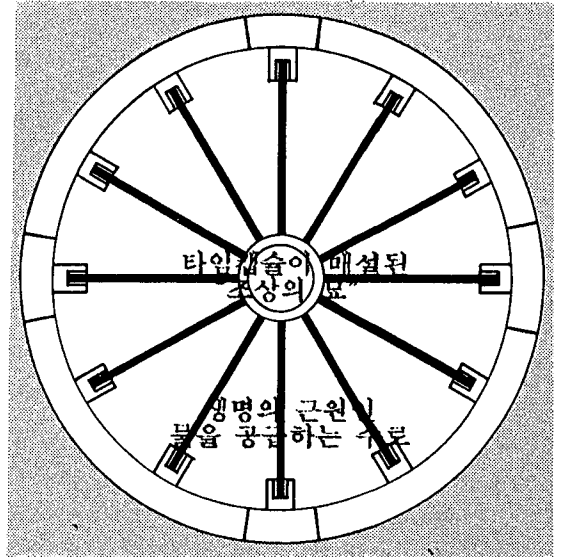
(그림 7) 전통사상에 나타난 시간개념



(그림 8) 주광장공간에 담긴 시간개념

또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몇가지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물인데, 생명의 근원이랄 수 있는 이 물을 각 시를 나타내는 지점을 발원지로 하여 시계의 시침이 1부터 12까지를 가리키며 이루어내는 궤적을 따라 수로를 만들고 이 수로를 통하여 원형의 주광장공간 중심부에 위치할 “조상의 묘”까지 공급하여 400년 동안 타임캡슐과 함께 잠자고 있을 존재가 다시 깨어날 그날까지 애타게 기다리며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을 상징화

하였다. 주광장공간에서의 물의 사용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간이용자들에게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즐거움을 더해 줄 것이다(그림 9).



(그림 9) 주광장공간의 평면

② “조상의 묘”

중앙의 공간 내부에 초점을 둔 내향적 공간구성 방법인 구심적 구성(centralized organization) 원리에 따라서 원형의 주광장공간 중심부에 초점으로서 위치할 “조상의 묘”는 돔(Dome)모양의 고분 형태를 취한다(사진 3). 타임캡슐을 땅에 묻었다가 400년 후 후손들이 파내어 현재 우리의 생활상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옛왕조의 고분을 발견하여 그곳에서 얻은 유물로부터 선조들의 생활상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조상의 묘”가 고분으로서의 의미와 형태를 지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돔 모양을 갖게 되는 이유는 기하학적 형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원과 곡선은 연속성을 나타내고, 여기에서 파생된 곡면과 체적을 포함하는 돔과 같은 통합적 구성물의 형태 또한 연속성을 상징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돔 모양의 고분 형태는 타임캡슐광장이 갖는 시간적 연속성의 개념과 조화를 이루고, 시간의 흐름속 한가운데에 위치한 “조상의 묘”가 지닌

상징적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기하학적 구조물의 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이상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조상의 묘”는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의 재료인 화강석을 사용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더해 주며 화강석 표면을 물갈기로 마감처리하고 그 표면에 타임캡슐과 관련된 글귀도 새겨 넣어 광장공간의 역사적 기념성을 제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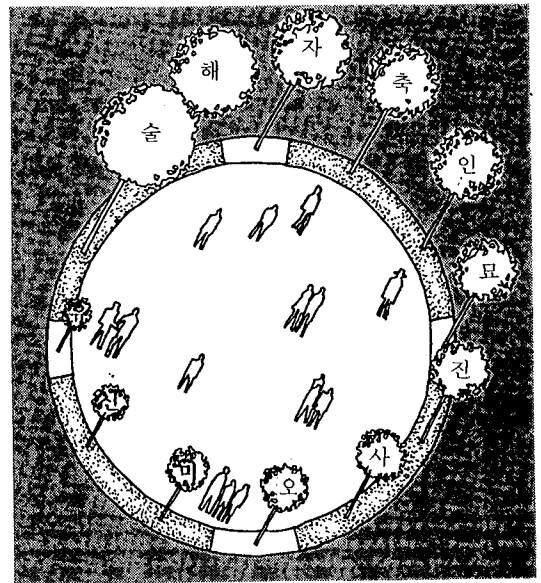
(사진 3) “조상의 묘”에 대한 공간 이미지

③ 주광장공간 주변식재

주광장공간 주위에 교목을 심는 방법은 아주 독특한데, 앞에서 제시했던 (그림 8)에 나타난 시간개념을 이용하여 식재하는 것이다. 계절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활엽수이며 서울시를 대표하는 수종인 13년생의 은행나무 한그루를 주광장공간 주위에 마련된 식재공간에 12지(十二支)로 구분된 해당연도 위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심는다. 예를들면, 1994년은 개띠해이므로 “술”의 위치에 13년생 나무 한그루를 심고, 1995년에는 돼지띠해가 되겠기에 역시 13년생 나무 한그루를 “해”의 위치에 심는다. 이로써 주광장공간의 교목수는 2개가 되며 1994년에 심었던 “술”의 나무는 14년생의 수목으로 성장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매년 해당연도 위치에 나무 한그루씩을 식재하여 주광장공간에 총 12그루의 교목이 들어차는 2005년이 되면 최초로 심었던, 즉 1994년에 심었던 나무는 24년생짜리 수목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그림10). 그 다음해인 2006년 개띠해가 돌아오는 해에 이 최초로 심었던 나무를 제거하고 그자리에 13년생짜리 나무

한그루를 다시 심는다. 이와같이 식재된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이 다시 심는 행위를 해마다 반복한다.

이런식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400년 후 타임캡슐을 개봉할 때까지 끊임없이 주광장공간에서 식재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식재행위는 하나의 의식(ritual)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매년 또는 12년마다, 혹은 60년마다 서울시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서 후손들에게 대물림하여 타임캡슐광장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조상들의 문화행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림 10) 2005년도의 주광장공간 주변에 식재된 수목의 성장상태를 보여주는 axonometric

13년생짜리 수목을 식재하는 이유를 설명해보면, 원래는 각 해당연도에 심는 나무를 묘목으로 하는 것이 시간속에 나타나는 수목의 성장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주광장공간에 수목식재로써 푸르름을 제공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후조건하에서는 묘목이 1년동안 성장하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미 어느정도 까지는 성장한 제 수형과

기능을 갖춘 수목을 식재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12개 라는 수목의 숫자는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고 주광장공간의 면적으로 볼 때도 합리적인 숫자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설계자는 이 주광장공간에서 시계의 형태 및 독특한 식재방법으로 시간의 흐름, 자연의 순환, 그리고 인간의 반복적인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3) 부공간

주광장공간을 지나면 반원형의 부공간이 나온다. 이 부공간은 주공간을 일정한 높이로 에워싸고 있어 적절한 위요감을 조성, 광장이용자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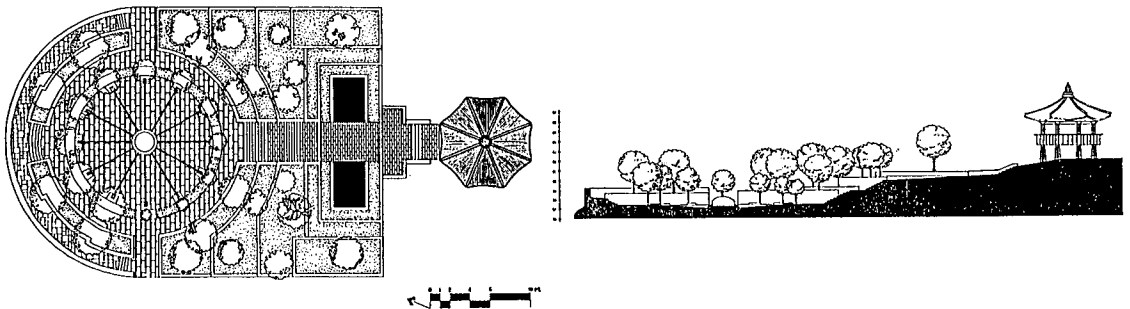
(사진 4) 부공간 복단의 옹벽에 대한 공간 이미지

부공간의 북쪽끝 부분은 고분축조양식이 도입된 옹벽의 형태를 취하는 일련의 벽체 및 통로와 앉을 장소를 제공해주는 지역으로서 주위의 자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게 만든 장소이다. 광장공간 내부에서 볼 때 이 지역은 공간을 구획하고 한정감을 주는 전통가옥의 담장과 같은 기능을 가진 부분으로서 주변 수림대가 지닌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차경수법에 의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광장공간 외부 북쪽 저지대에서 이 지역을 올려다 보면 성곽의 모습을 띠고 있는 부분이다(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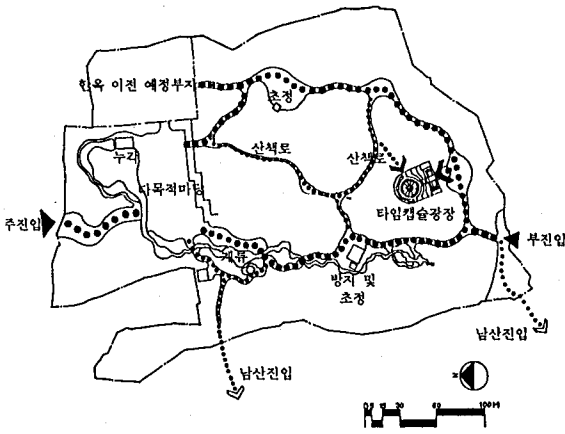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설계자가 타임캡슐광장공간을 구성할 때 산정과 주광장공간 사이에 지당 및 화계공간을 조성하여 진입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공간을 배치한 것과 주광장공간을 조성한 것, 그리고 주광장공간을 지나서 부공간을 마련해둔 것은 전통적인 공간배치 원리에 입각하여 광장공간을 구성한 것이다.

3. 「서울 1000년 타임캡슐광장」 설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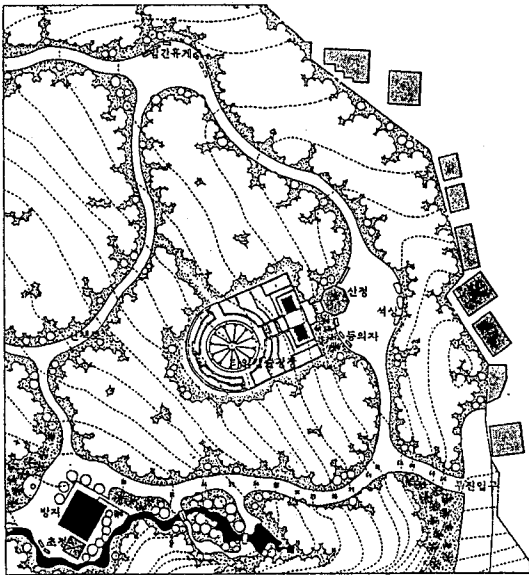
설계자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공간구성 기법에 입각한 디자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광장공간의 모습을 구체화시키고, 디자인 프로그램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에 의해 복원될 광장부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변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광장공간배치를 완료하였다(그림 11, 12, 13).



(그림 11) 「서울 1000년 타임캡슐광장」의 평면도(좌) 및 입단면도(우)



(그림 12)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부지와 연계성을 고려한 타임캡슐광장 및 주변지역의 동선체계도



(그림 13) 타임캡슐광장 및 주변지역

VII. 광장디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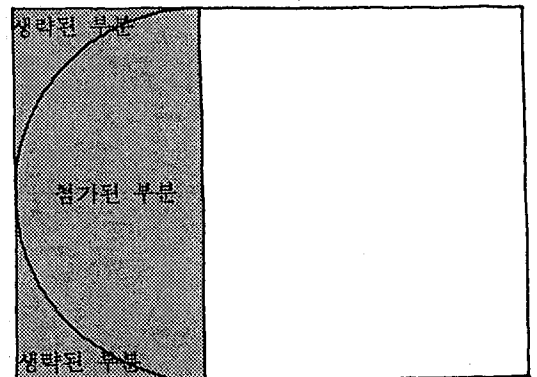
최종적인 디자인에 의한 광장공간을 2차원 및 3차원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장디자인을 위한 조형적 구상 및 공간적 특성에 관한 2차원적 분석

조형적 구상(formative ideas)이란 디자인을 할 때 공간의 형태를 구체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서, 설계자는 다음에 소개되는 조형적 구상에 의해 디자인 과정에서의 결정을 체계화시키고 공간구성에 질서를 부여했으며 공간의 형태를 의식적으로 발생시켰다. 여기에서는 8가지 조형적 구상에 의해 체계화되는 공간디자인의 과정을 도해를 통하여 소개해 본다.

• 첨가와 생략 (Additive and Subtractive)

첨가와 생략의 조형적 개념은 원래 건축공간의 형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구조된 건축공간의 형태에 대해 첨가하거나 집산화하고 혹은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가지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설계자는 원형과 사각형을 중복시키고 첨가와 생략의 조형적 개념에 입각한 형태개발 과정을 거쳐 광장공간의 기본적인 2차원적 형태를 얻게 되었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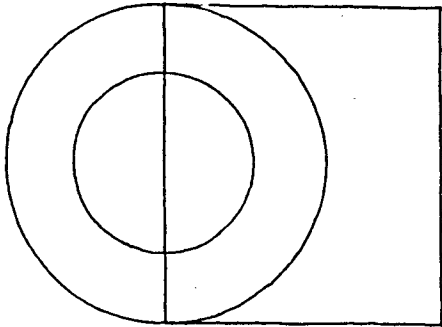


(그림 14) 첨가와 생략

• 파티 (Parti)

Ecole des Beaux Arts Institute 에서 디자인 어휘로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파티 개념은 공간이 지닌 두드러진 특성을 구현시키는 지배적인 개념으로서, 설계자는 (그림 15)에 나타난 파티를 근거로 하여 광장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적, 형태적, 기능적인,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른 디자인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설계안을 고안해냈다. 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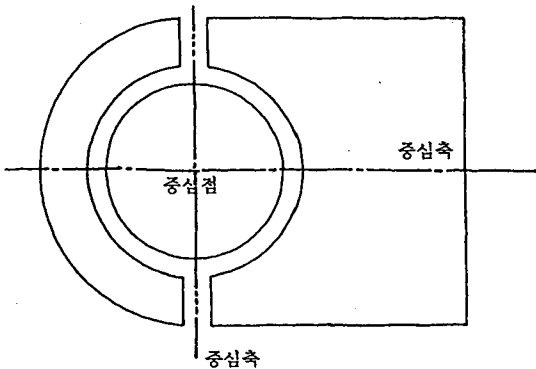
림은 타임캡슐광장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집합(集合)을 이루고 있는지 보여준다.



(그림 15) 파티

• 대칭과 균형(Symmetry and Balance)

대칭과 균형의 조형적 구상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인식되고 이해되는 평형상태를 설정하여 공간디자인이 이루어짐을 말하는데, 설계자는 특히 균형의 특별한 형태인 대칭의 개념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갖는 선(축)과 점(중심)을 중심으로 하여 광장의 형태와 공간을 균형있게 배치하였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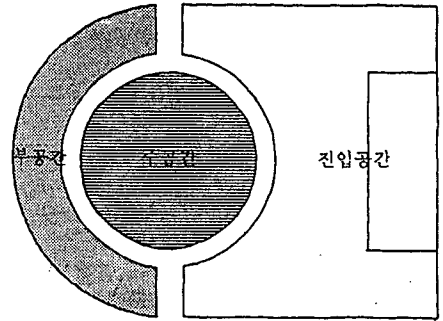


(그림 16) 대칭과 균형

• 계층성 (Hierarchy)

공간디자인에서 계층성이란 구성요소들이 지닌 중요정도에 따라 위계를 정하여 물리적 표현을 통한 가치부여를 의미하는데, 설계자는 광장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간의 형태 및 배치개념을 통하여 공간의 중요도를 구분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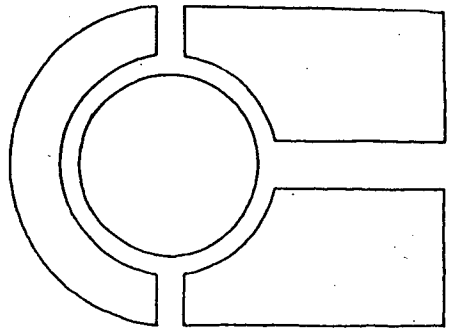
다(그림 17).



(그림 17) 계층성

• 전체에 대한 단위공간(Unit to Wh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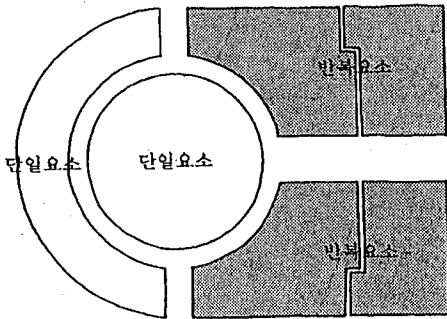
전체에 대한 단위의 관계란 각 단위들은 다른 개체의 단위들과의 특수한 결합으로 공간의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는 단위개체의 개념을 포함하는 조형적 구상으로서, 타임캡슐광장은 (그림 18)에서 보는 것처럼 4가지의 기본적인 단위개체들이 공간적, 구조적 구성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 전체에 대한 단위공간

• 단일성에 대한 반복성(Repetitive to Un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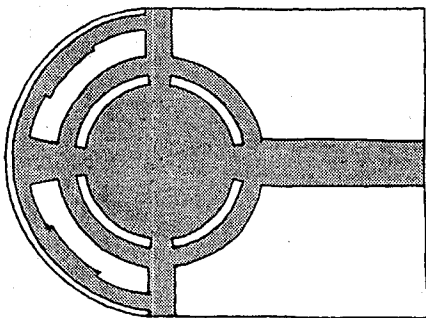
반복요소와 단일요소에 관련된 조형적 개념은 다수적(multiple) 구성요소와 단일적(singular)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인데, 설계자가 선택했던 반복요소와 단일요소의 공간적 배치관계는 (그림 19)에 나타나 있다.



(그림 19) 단일성에 대한 반복성

• 공간이용의 순환(Circulation to Use)

순환과 공간이용이란 공간에 있어서 중요한 동적(dynamic) 및 정적(static)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공간이용의 순환이라는 조형적 구상은 일차적으로 순환의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동(movement)과 고정(stability)에 관한 조건들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림 20)은 설계자가 사람들이 광장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결정해주는데 이용했던 도해이다. 그림에서 검은 부분은 이동(동적) 공간을, 흰 부분은 고정(정적) 공간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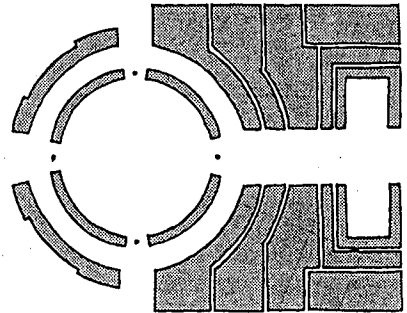


(그림 20) 공간이용의 순환

• 식생 (Vegetation)

설계자는 광장공간의 세부적인 단위공간들을 명확히 한정시키고 공간이 지닌 대칭성을 강조하여 시각적 균형감을 이룩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를 이용했으며, 공간내의 정형적인 건축적 형태와 식물이 지닌 비정형적인 자연적 형태의 대비를

통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생동감(vitality)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21). 그림에서 검은 부분이 식물재료가 사용되었던 공간이다.



(그림 21) 식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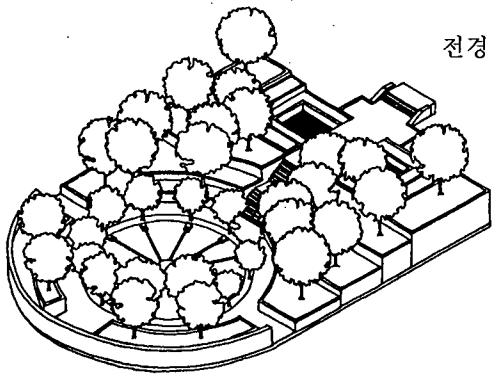
2. 광장공간의 구성요소에 관한 3차원적 분석

(그림 22)는 타임캡슐광장공간의 전경을 3차원적으로 보여주는 isometric과 일련의 분해도(disassemblies)이다. 폭발되어 분리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explodametric으로 불리는 이 분해도는 공간의 각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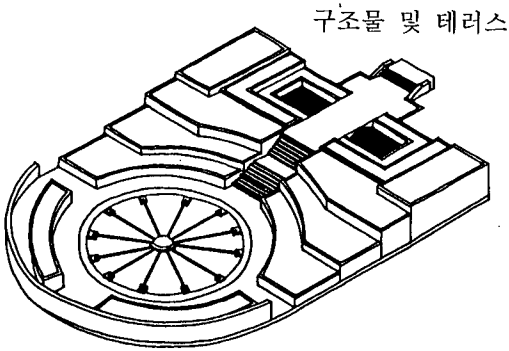
• 구조물 및 테러스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광장의 진입공간 지역은 자연경사지를 이용하여 단 처리를 했고 부공간 지역의 북쪽끝 부분에는 벽체를 조성했는데, 설계자는 이러한 공간의 형태를 통하여 수직적 구성요소보다 수평적 구성요소가 강조되어 시각적으로 수평적 방향성(direction)이 우세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으며 광장공간에 통일성(unity)을 부여하고자 했다.

• 광장공간에는 수경시설을 마련하여 공간이용자들에게 생동감을 느끼게하고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즐거움을 주도록 했다.

• 주광장공간 주변지역에서의 은행나무 식재를 제외한 전체적인 광장공간에서의 일반적인 식재 방법은 중앙의 축을 중심으로 한 좌우대칭적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대칭에 의한 단조로움과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변화와 약동감을 줄 수 있도록 대칭과 비대칭의 중간적인 형태인 근사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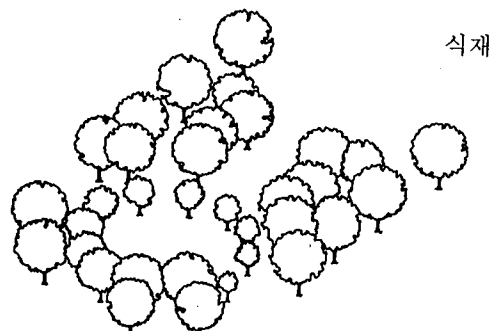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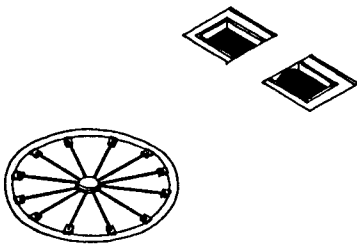


전경



구조물 및 테라스

수경관



식재

(近似對稱)의 원리에 입각하여 부분적으로 상이한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식재하였는데, 식재수종으로는 계절감을 느끼고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도록 꽃이 아름답고 단풍이 들며 낙엽이 지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였다.

引用文獻

1. 김수인 편역 (1981) 「건축디자인의 원점」, 서울:산업 도서출판공사:6, 47-50, 138-147.
2. 서울특별시(1993)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3. 정다운 (1985) 「인생십이진법」, 서울:밀알: 60-61, 373-375.
4. Baker, G. H.(1984) *Le Corbusier, An Analysis of For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5. Bussagli, M.(1981) "Translated by John Shepley," *Oriental Architecture/2*, New York: Electa/Rizzoli:139-161.
6. Ching, F. D. K.(1979) *Architecture: Form, Space & Order*,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332-385.
7. Clark, R. H.(1985) *Precedents in Architectur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8. Dondis, D. A.(1973) *A Primer of Visual Literacy*, Cambridge, MA: MIT Press: 44-46.
9. Eckbo, G.(1978) *Home Landscape: The Art of Home Landscap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68-78.
10. Grillo, P. J.(1975) *Form, Function, and Desig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1. Laseau, P.(1984) *Visual Notes for Architects and Designer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184-191.
12. Laseau, P.(1989) *Graphic Thinking for Architects and Designer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3. Moore, C. W., J. M. William, T. Jr. William (1988) *The Poetics of Gardens*, Cambridge, MA:MIT Press.
14. Motloch, J. L.(1991) *Introduction to Landscape Design*, New York:Van Nostrand Reinhold: 132-149.
15. Rubenstein, H. M.(1992) *Pedestrian Malls, Streetscapes, and Urban Space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48-55.
16. Smithies, K. W. (1981) *Principles of Design in Architectur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7. VanDyke, S.(1985) *From Line to Design: Design Graphics Communication*, Mesa, Arizona: PDA Publishers Corporation: 25-35.
18. Youl, H. D.(1988) *Korean Ancient Palaces*, Seoul: Youl Hwa Dang Publishing Co.

(그림 22) 타임캡슐광장공간의 3차원적 그림